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84호 【루계 제25227호】 주체105(2016)년 3월 24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홍영칠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우리 당의 경제건설로선과 기계공업중시사상을 심장으로 받들고 자력자강의 힘으로 현대적인 중기계들을 훌륭히 제작한 긍지를 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또다시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게 된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은 크나큰 격정으로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을 돌아보시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중공업, 기계공업의 주체적발전에 언제나 큰 힘을 넣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새로운 건설중기계들을 비롯한 설비개발사업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공장에 어려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혁명사적교양실을 새로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는 혁명사적교양실을 정중성과 직관성의 원칙에서 환하게 꾸리였으며 사적자료와 사적물전시도 잘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행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왔으며 그 어떤 과업이 맡겨져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발전력사는 곧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력사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짜고들어 공장로동계급들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현대적인 중기계들과 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난해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신 새 기계제품개발사업진척정형을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새로 제작한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이 현실에서 커다란 은을 나타내고있다고 하시면서 이것만 놓고보아도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기계제작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는것이 알린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첨단기계제품들이 즐지어 서있는 모습을 보시며 볼수록 마음이 흐뭇하다고, 장관이라고 하시면서 당에서 준 과업은 그 어떤것이라도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2월11일공장은 영웅칭호를 받을만 하다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관직장, 주강직장, 조립직장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서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이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맡겨진 생산계획을 무조건 철저히 수행할데 대한 문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여러가지 용도에 쓸수 있는 성능이 높은 중기계들과 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데 대한 문제, 생산용자재와 부속품의 국산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문제, 련관단위들에서 질좋은 협동품들을 제때에 보장해줄데 대한 문제 등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의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늘이고 제품의 질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현대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현대화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자면 전반적인 생산 및 기술공정들을 완전히 때벗이하기 위한 목표를 전망성있게 잘 세우는것과 함께 현행생산과 새 제품개발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핵심부문부터 현대화하며 공장의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근본적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산장성과 제품의 질제고는 과학기술에 의해 담보되는것만큼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현대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기지를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실속있게 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에 망라시켜 그들을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당에서 직접 맡아 올해중으로 과학기술보급실과 문화회관 등을 건설해주시겠다는 은정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안에 차넘치는 1950년대 군자리로동계급이 발휘한 투쟁정신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더욱 세차게 폭발시킨다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다고 하시면서 공장의 로동계급들이 공장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며 현대적인 기계제품개발 및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월11일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당중앙이 제시한 투쟁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고야말 충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우리 당의 국방과학기술중시정책이 낳은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 성공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사회주의조국강산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전변의 서사시가 수놓아지고 나라의 국력이 전례없이 강화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주체적국방력강화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직접 발기하신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연구제작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며 고심어린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온 우리의 미더운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투명령을 빛나게 관철하고 시험에서도 단번에 성공하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철야전투를 진두지휘하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도 몸소 시험현장에 나오시여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병철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홍영칠동지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일군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속에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을 진행하는 뜻깊은 시각을 맞이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원수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흘러온 연구사업의 날과 날에 있은 가슴뜨거운 일들이 떠올라 눈굽을 적시였다.

이번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시험은 우리 식대로 새로 설계제작한 발동기의 구조안정성과 추진력을 평가하고 이와 함께 열분리체계 및 타추종체계의 동작특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상분출시험에 앞서 고체로케트발동기를 몸소 손으로 쓸어보시며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제작한것인데 시험에서 꼭 성공할것이라고, 이것이 자력자강의 산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과 함께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에서 거대한 불줄기가 세차게 뿜어졌다.

시험결과 예측값과 측정값이 놀라울 정도로 일치되였으며 모든 과학기술적지표들에 완전히 부합된다는것이 확증되였다.

가슴을 조이며 영상표시장치를 보던 일군들과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박수를 쳐주시며 축하한다고, 훌륭하다고, 정말 기분이 좋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직한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비상한 창조적열정과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 견인불발의 의지에 의하여 우리는 또다시 과학의 큰 령마루를 점령하고 나라의 로케트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도약대를 마련하였다고, 오늘은 정말 좋은 날, 영원히 잊지 못할 날, 력사적인 날이라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높이 세운 국방과학기술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으며 이제는 적대세력들을 무자비하게 조져댈수 있는 탄도로케트들의 위력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가 자력자강의 힘으로 력사적이며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대출력고체로케트발동기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에서 완전성공함으로써 백두산혁명강군의 불패의 군력을 비상히 높일수 있게 되였다고, 국방력강화를 위해 악전고투하며 투쟁한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의 위훈은 조국청사에 길이 남을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방과학기술을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인 과학기술을 빠른 기간내에 세계첨단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 조국을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잘사는 나라로 만들려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신심과 락관을 주고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와 전률을 안기는 국방과학기술성과들을 다계단으로 련이어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전투적과업을 받아안은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심을 간직하고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혁명임무를 결사관철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사 설

백절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승리와 영광의 5월을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자

전체 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드높은 애국적열정으로 하여 지금 총정의 70일전투는 계속 고조되고있다. 온 나라에 주체조선의 만리마기상이 약동하고 도처에서 련일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70일전투목표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한 선구자단위, 혁신자들이 계속 배출되고있는 속에 앞선 단위들을 따라배우고 따라앞서기 위한 경쟁이 맹렬히 벌어지고있다.

우리는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틀어쥐고 70일전투에 더욱 박차를 가함으로써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치며 최후승리에로 질풍같이 내달리는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높이 떨쳐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군대와 인민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의를 안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하여 총공격, 총돌격하여야 합니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30일이 지났다. 우리 당 전투기록집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이 나날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위대성이 힘있게 과시된 성스러운 행로이며 천만군민이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온갖 도전과 시련을 자력자강으로 짓부시며 맹렬한 총공격전을 벌려온 긍지높은 나날이다.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를 벌림에 대한 우리 당의 호소는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총폭발시키였다. 금속, 기계, 석탄, 전력공업부문들과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 사회주의협동벌과 과학연구기지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 그 어디나 전례없는 혁명적분위기로 끓어번졌다. 기계공업성이래 공장, 기업소들에서 70일전투가 시작되여 첫 열흘동안에 전투목표를 2배이상 초과완수하고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보름 남짓한 기간에 최고실적을 련이어 돌파하는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지난 30일간 상반년계획완수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도처에서 70일전투의 승리를 예고하는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난것은 우리 인민의 앙양된 혁명적기상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혁명은 공격전이다. 순간의 침체와 답보도 없이 공격, 공격 또 공격해나가는데 혁명승리의 근본담보가 있다.

70일전투는 앞으로 40일 남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내세운 목표들을 점령하고 5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면 공격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필승의 기치로 틀어쥐고 최대의 마력을 내여 전속력으로 내달려야 할 때이다.

우리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천만군민이 당중앙과 사상도 숨결도 발걸음도 함께 해나가는 일심단결의 위력을 힘있게 떨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우리 당의 공격사상은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파괴하 맞받아 뚫고나가는 대담무쌍한 돌격사상이며 승리와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전진 또 전진해나가는 계속혁명사상이다. 여기에는 우리 혁명의 백승의 명맥을 이어주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깃들어있으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철리가 새겨져있다. 사소한 주저와 동요, 타협과 양보,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궤도따라 오직 곧바로 폭풍노도쳐 내달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정신적무기라는데 우리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의 무한대한 생명력이 있다.

오늘날 우리 인민이 당을 심장으로 따르고 받든다는것은 곧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뼈에 새기고 그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나간다는것이다. 당중앙위원회의 뜨락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려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 당의 공격사상의 제일체현자가 되여야 한다. 천만시련도 강행돌파해나가는 무비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최첨단의 요새도 우리 식으로 점령해나가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심어주는것이 바로 우리 당의 공격사상이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을 체질화한 사람에게는 먼길을 왔다고 신들메를 풀고 가는 길이 험난하다고 하여 맥을 놓거나 흐리터분한 잠사상에 오염되여 보신, 동면하는 일이 추호도 있을수 없다.

조선의 힘은 당중앙의 사상과 뜻으로 싸우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며 조선의 기상은 세계를 압도하며 폭풍쳐 질주해나가는 만리마의 기상이다. 전체 인민이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의 전진속도는 비상히 빨라지고 누구나 오늘의 총정의 70일전투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떨치게 될것이다.

우리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것은 현시기 조성된 엄혹한 정세로부터 나서는 절박한 요구이다.

지금 우리 조국땅우에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날과 날들이 흐르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사상최대규모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 매일과 같이 화약내를 풍기며 발광하고있다. 우리를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쑤들의 책동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있는것은 우리가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있으며 승리하고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다.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란 있을수 없다. 시련과 난관이 겹쌓이고 원쑤들이 발악할수록 더욱더 용기백배하여 맞받아나가는것이 선군조선의 본때이고 기질이다. 우리 당의 공격적인 혁명사상에는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 생존권을 짓밟으려고 피를 물고 덤벼드는 원쑤들의 책동을 짓뭉개버리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며 혁명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려는 철석같은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오늘의 70일전투에서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더욱 빛내여나가자고 하여도 그렇고 원쑤격멸의 기세드높이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자고 하여도 우리 당의 공격사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

드세찬 공격전, 여기에 난관극복의 열쇠가 있고 기적창조의 지름길이 있다. 천만군민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굴함없는 공격정신으로 혁명의 최고수뇌부와 자기의 사상과 위업, 자기 제도를 결사옹위해나가는 백두산대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구현자가 되여 70일전투철야진군을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필승의 신념은 무비의 용감성과 강인탄대한 투지를 낳는 초석이다. 혁명가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그 승리에 대한 신념이 강해야 불굴의 공격투사가 될수 있다.

희세의 사상리론가이시며 걸출한 정치가, 군사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선군조선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번영의 근본원천이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르는 길에 우리의 모든 존엄과 승리,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을 간직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려는 절대적인 신뢰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원수님 따라 주체혁명의 한길을 끝까지 가려는 일편단심, 이것이 우리 인민모두가 지녀야 할 총정의 세계이다. 누구나 경애하는 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결사옹위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에 무한히 충직한 전결한 혁명가, 참된 혁명동지가 되여야 한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가적풍모를 적극 따라배워야 한다.

우리 혁명의 공격전의 력사는 곧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담대한 배짱,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고 기어이 승리를 이룩하려는 강의한 의지를 지니시고 끊임없는 공격전으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귀감으로, 교과서로 삼고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살며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력사에 대한 학습을 심화시켜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새겨야 한다. 류례없이 복잡다단하고 엄혹했던 우리 혁명이 어떻게 승승장구의 한길로만 전진해올수 있었으며 이 땅우의 모든 고귀한 재부들이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심장속에 간직하고 절세위인들의 기상과 탁력으로 백두산번개처럼, 정일봉우뢰처럼 공격전의 도수를 높여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이 70일전투에서 최고의 실적,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지난 전투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나타난 부족점들을 분석총화하고 조직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매일매일 우리 당의 공격사상으로 살며 일하고있는가를 돌이켜보며 무단히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견인불발의 혁명정신을 발휘해나가야 한다. 70일전투기록장에 자신들의 혁명성과 투신력, 영웅성이 깃든 빛나는 위훈의 자욱을 새겨나가야 한다.

우리 당의 공격사상은 자력자강의 신념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인 사상이다. 우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자기의 힘, 자기의 기술과 자원으로 대비약적혁신을 일으켜나가는 선군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떨쳐나가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더 높이 발휘하며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 동원하고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며 세계를 놀래우는 눈부신 성과들을 다발적, 련발적으로 창조해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선구자이다. 지금 인민군장병들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을 무자비한 징벌의 불벼락으로 짓부셔버릴 필적의 의지에 넘쳐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있으며 강성국가건설의 주요전구들마다에서도 불굴의 공격정신으로 새로운 기적들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단숨에, 이것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강용한 우리 인민군대의 공격기상의 발현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일단 과업을 받으면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키며 불이 번쩍 나게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끼는 인민군군인들의 실지투쟁모습에 늘 자신들을 비추어보아야 한다. 군민협동작전과정이 그대로 군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를 실현해나가는 과정으로, 혁명적군인정신의 위력이 최대로 분출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70일전투철야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려야 할 선봉투사는 당원들이다. 모든 당원들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한성원으로서의 영예를 높이 떨쳐나가야 한다. 70일전투를 통하여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을 검증받는다는 비상한 자각,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고 돌파구를 열어나가려는 왕성한 투지, 언제나 공격전의 제일선에서 내달리려는 불같은 열정이 우리 당원들모두의 심장마다에 세차게 맥동쳐야 한다.

우리 당의 공격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주되는 장애물은 패배주의와 요령주의, 보신주의, 보수주의, 형식주의와 같은 온갖 낡은 사상요소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패배주의에 빠지면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고 열린 길로도 나아갈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여야 한다. 눈가림식, 오분열도식일본새와 주인답지 못한 태도, 일신의 안락만을 생각하며 맡은 일에 투신하지 않고 적극성, 대담성이 없이 조건이 보장되기만을 앉아기다리는것과 같은 현상들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70일전투기간 전진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을 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강한 투쟁을 벌려 사상관점과 투쟁기풍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전체 인민이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으로 억세게 싸워나가도록 하는데서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우리 당은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서 만리마시대의 새로운 시대대표정신이 창조, 창출되도록 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의 화력을 들이대어 온 나라가 전례없는 대중적영웅주의로 들끓게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70일전투에서 앞장서 달리는 전형단위들의 자랑찬 성과들에는 당의 요구대로 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을 맹렬히 전개한 해당 단위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 일군들의 귀중한 사업경험이 비껴있다.

정치사상사업을 침입식으로 벌린다는것은 박달나무를 쐐기를 박아 짜개듯이 사상포문을 일제히 열고 요진통에 명중포화, 집중포화, 련속포화를 들이댄다는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여 발전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식의 돌발적인 정치사상사업이나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는 뒤지듬식의 정치사상사업이 아니라 당에서 제시한 당면과업관철을 위하여 중심고리를 바로 정하고 정치사상사업을 목적지향성있게 공세적으로 벌려나간다는것이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70일전투를 조직한 우리 당의 의도를 깊이 새기고 침입식으로 정치사상사업에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불굴의 공격기상으로 미제와 계급적원쑤들을 끝까지 격멸소탕하고야말겠다는 투철한 반제계급의식을 지니도록 반제계급교양의 열도를 최대로 높여야 한다. 중심고리를 틀어쥐고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나갈수 있도록 집중적인 사상공세를 들이대야 한다. 사상사업을 구체적실정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기동적으로, 전공적으로 벌려 그 어디에서나 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이 전인민적인 총공격전이 벌어지는 격동적인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업을 대담하면서도 치밀하게 작전하고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패기있게 밀고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어야 한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우리 혁명의 공격전의 력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공격전은 혁명과 건설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투쟁방식이다.

모두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적인 혁명사상을 뼈에 새기고 백배, 천배의 힘을 모아 맹렬한 총공격전을 들이댐으로써 70일전투철야진군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평양시상업학교 교장 김창민은 선군시대풍로자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조선혁명박물관을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 꾸리는데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으며 교육사업에 헌신함으로써 대중의 존경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려는 순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산하단위 부원 리은향은 많은 자재를 보내주어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4.15문학창작단 산하단위 로동자 정은해도 조선혁명박물관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 절실히 필요한 물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돌격대원들의 로력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간 일념밑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단위 부원 강혁철은 공사에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물심량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체오기술합작회사 기술준비원 김혁위는 백두산청년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청년전위답게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를 끝없이 빛내이는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왔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여온 평양체육관 로동자 박미화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충정을 바치면서 지원사업도 잘하였다.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산하단위 부원 황금별도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더욱 강렬해지는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정성다해 마련한 물자들을 보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전통을 더욱 빛내이는 사업에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왕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아브둘라흐 2세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왕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선물을 주조 하쉐미트요르단왕국 신임특명전권대사 야흐야 카파레흐가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국가수반에게 축전과 위문전문을 보내였다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대통령

맘눈 후쎄인각하

나는 귀국인민의 민족적명절인 파키스탄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친선적인 파키스탄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호상리익에 맞게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3월 23일 평 양

브류셀

벨지끄왕국 국왕

필리쁘페하

나는 브류셀에서 일어난 야만적인 테로공격사건들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온갖 형태의 테로를 반대하는 우리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립장을 재확언하면서 귀국이 이번 사건의 비극적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5(2016)년 3월 23일 평 양

태양절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태양절경축 체스꼬준비위원회가 9일 쁘라하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백두산체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야로슬라브 까뜨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의의있게 조직하기로 하였다.

* *

태양절경축 몽고준비위원회가 10일 브라자빌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몽고제 인민간의 친선협회 위원장 비딸 발라가, 부위원장으로 몽고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 아쌍다 장노엘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 그리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에 대하여 출판보도물들에 널리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요르단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야흐야 카파레흐 주조 하쉐미트요르단왕국 특명전권대사가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신홍철 외무성 부상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의 경고가 빈말이 아니라는것을 미제와 박근혜역도의 비참한 종말이 그대로 보여주게 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보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과 박근혜역적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망동이 극한계선을 넘어서고있다.

3월 21일에는 미제의 부추김을 받은 괴뢰군부호전광들이 공중대지상유도탄을 장착한 16대의 전투폭격기편대군을 동원하여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극악무도한 《정밀타격훈련》이라는것을 감행하였다.

훈련에는 준비된 악질특전병력들도 동원되였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치떨리는 도발이며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천인공노할 대결망동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이미 벌려놓은 《북종심내륙전공작전》과 《정양점령작전》, 《참수작전》 등이 지상과 해상에서 우리 수뇌부를 노리고 감행된 엄중한 도발이였다면 이번 《집무실정밀타격훈련》은 공중에서 우리 수뇌부를 목표로 삼고 감행된 가장 로골적이고 위험천만한 군사적망동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도발망동은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북핵제거》를 실현할수 없다는 미국상전의 점은 속내가 깔린 떠벌임과 함께 박근혜년이 3월 21일에 소집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라는데서 아무런 뒤수습대책도 없이 북과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궤친 독기어린 폭언과 때를 같이하여 감행된것으로 하여 더욱 방관시할수 없다.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이 시각부터 조선인민군 정규부대들과 로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무력과 전체 인민들의 일거일동은 박근혜역적패당을 이 땅, 이 하늘아래에서 단호히 제거해버리기 위한 정의의 보복전에 지향될것이다.

우리의 보복전은 성스러운 수령결사옹위전이며 자비를 모르는 원쑤격멸전이다.

우리의 보복전은 청와대안에서 시작될수도 있고 청와대가까이에서도 전개될수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는다.

우리의 전략군의 실전배비된 초정밀타격수단들의 첫째가는 타격대상이 청와대를 포함한 남조선지역안의 모든 적소굴들이라는데 대해서는 이미 선포한 상태이다.

무적을 자랑하는 우리 포병집단의 위력한 대구경방사포들도 박근혜가 도사리고있는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격동상태에 있다.

누르면 불바다가 되고 타격하면 재가루가 되게 되여있다.

남반부작전지대에 투입될 우리의 적후부대들은 임의의 시각에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대상들을 단숨에 짓고앉아 박근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버릴 폭풍작전, 번개작전에 진입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

우리의 최고수뇌부, 최고존엄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우리 천만군민의 멸적의 기상을 미제와 박근혜패당은 똑바로 보아야 한다.

우리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은 이미 할것은 다 해놓고 가질것은 다 가지고있다는 우리의 경고를 절대로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잔명이라도 부지하려면 어리석게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일단 결심하면 박근혜역적패당은 물론 침략의 크고작은 모든 본거지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기 위한 우리 식의 선제공격작전이 세계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불이 번쩍 나게 벌어지게 될것이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분별없이 날뛰는 미제와 박근혜역적패당의 비참한 종말이 그대로 증명해줄것이다.

주체105(2016)년 3월 23일
평 양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70일전투의 철야진군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련대적혁신, 집단주의적경쟁열풍속에 이룩된 자랑찬 성과

인민경제 중요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70일전투 한달목표 넘쳐 수행

당 제7차대회장으로 향한 철야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인민경제 중요부문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이 70일전투에 진입한 때로부터 한달동안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전력공업부문 로동계급은 이 기간 높이 세운 70일전투목표를 일평균 106%로 돌파하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70일전투에 진입하여 한달동안 계획보다 근 20만t이나 더 많은 석탄을 생산하였으며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재령광산을 비롯한 금속공업부문 기업소, 광산들에서도 주체철, 강철, 철광석, 철정광생산에서 성과를 이룩하였다. 나라의 동맥, 선행관을 지켜선 철도운수부문 수송전사들은 70일전투전에 비해 화차회귀일수를 단축하고 화물수송량을 108%로 장성시키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도 70일전투목표로 내세웠던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생산계획을 각각 108%, 102%, 150%로 넘쳐 수행하고 공작기계를 비롯한 기본지표들의 생산계획수행에서도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 성과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당 제7차대회장에 멋멋이 들어서려는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충정이 안아온 결실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쳐날뛰는 원쑤들의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는 혁명적대고조의 거세찬 불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명령지시라면 산악같이 떨쳐일어나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투쟁기풍이다.》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전력공업부문 로동계급이 새 기록, 새 기준창조의 불길높이 힘차게 내달렸다.

굴지의 대동력기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생산잠재력과 내부예비를 총동원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려 높이 내세운 70일전투목표를 일평균 104.9%로 넘쳐 수행하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동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로동계급도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밑천의 무기로 틀어쥐고 맹렬한 경쟁을 벌리며 매일 맡겨진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각지 중소형발전소들에서도 증산의 동음이 우렁차게 울려퍼져 수력발전부문적으로 70일전투목표가 일평균 104.7%로 수행되였다.

전력, 금속,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이어진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도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기상안고 생산적앙양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켰다. 특히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의 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을 뼈에 새기고 굴진을 앞세워 많은 채탄장을 마련함으로써 석탄생산계획을 일평균 117%로 넘쳐 수행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덕천, 북창을 비롯한 서부지구의 탄전들에서도 굴진실적이 종전에 비해 훨씬 뛰여오르고 채탄장수도 계속 증가되는 속에 매일 종전에 비할바없는 많은 량의 석탄이 증산되는 기적이 창조되였다.

전력, 석탄공업부문 로동계급의 앙양된 기세는 금속공업부문 로동계급의 투쟁에도 거세찬 불을 달아주었다. 특히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산소열법용광로를 만가동시켜 한달동안 주체철생산계획을 일평균 124%로 넘쳐 수행하였다. 강선로동계급도 직장과 직장이 서로 도와주면서 경쟁하는 집단적혁신의 불바람,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주체철, 강철, 압연강재생산을 장성시키였다. 만리마속도창조의 거세찬 불길이 타오르는 속에 재령광산에서 24일만에 70일전투 최돌생산목표를 103%로 넘쳐 수행하는 혁신이 일어나고 무산광산련합기업소, 은률광산 로동계급도 박토처리를 앞세우는데 력량을 집중하고 채굴연선마다에서 립체전을 들이대여 철정광, 철광석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두줄기 궤도우에서 증송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려퍼지였다. 평양철도국 수송전사들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각지 화력발전소들과 사회주의농촌진흥방인 농업전선에 대한 화력탄, 비료수송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특히 북창철도분국 일군들과 사령원들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기관차, 화차들의 이동상태, 석탄확보량을 환히 꿰든데 기초하여 화차맞물림조직을 과학적으로 짜고들었다. 하여 평양철도국적으로 7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달동안 계획보다 훨씬 많은 화력탄을 증송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함흥, 개천철도국에서도 일별, 주별로 수송목표를 높이 세우고 경쟁열풍을 일으키며 인민경제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수송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련대적혁신, 집단주의적경쟁열풍은 기계공업부문에서도 휘몰아쳤다. 특히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지난 10일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에 보내줄 발전설비생산을 완전결속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7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달동안에 인민경제 중요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이룩된 이 성과는 당 제7차대회장으로 향한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충 성

북창의 대동력기지에 전력증산의 불길 세차게 타오른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수들

각지 경공업공장들에서 년간계획, 상반년계획완수자들 련이어 배출

매일매일의 전투기록장에 자기들의 충정과 애국심을 새겨가는 전투원들가운데 동무는 만리마를 탔는가? 이런 시대의 물음에 멋멋이 대답할 위훈자들을 어찌 천으로, 만으로 다 헤아릴수 있으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진군대오의 전렬에서 질풍같이 내달리는 위훈자들속에는 각지 경공업공장의 수많은 녀성로력혁신자들도 있다.

전투에 들어선지 불과 한달, 짧은 한순간이 살처럼 흘렀다.

이 보람차고 격동적인 나날에 경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의 정신력은 천배만배로 분출되였다. 활화산같이 폭발된 정신력으로 전투목표의 2배, 3배를 해내고도 성차하지 않는 미더운 우리 녀성로동계급에 의해 경공업공장들이 자기의 몫을 당당히 수행해나가고 있다.

이 기적의 불길속에 지난 3월 10일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의 로동계급은 자기들이 70일전투목표로 내세운 상반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기록을 세웠다. 온 공장의 종업원들모두가 상반년계획완수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그들중에는 3직장 박일주, 림봉향, 김정향동무들과 2직장 리윤희동무와 같이 천리마를 타고 시대의 앞장에 섰던 전세대 로동계급처럼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만리마기상으로 달리고 또 달려 년간계획완수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선 위훈의 창조자들도 있다.

70일전투의 나날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미더운 방직공들도 우리 당의 인민사랑, 후대사랑이 온 나라 가정들에 더 뜨겁게 미치게 하자고 서로서로 약속하며 일터마다에서 만리마의 억센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였다. 그 앞장에서 직포종합직장 직포공 로력영웅 문강순동무가 지난 3월 6일 맨 처음으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했다. 이어 한명희, 김옥향, 성분희, 김진향, 류순미, 조명심동무들이 년간계획완수자대오에 들어섰고 근 100명의 방직공들이 상반년계획완수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혁신자대오속에 당당히 들어선 정공업공장 종업원들속에는 지난 3월 12일 상반년계획을 완수한 함흥제사공장의 로동계급도 있다. 공장의 청년조사직장 조사공 한은하, 박윤경, 류현희, 박정옥동무들은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충정으로 수놓으며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사리원방직공장 1직포직장 직포공 김일향동무를 비롯한 여러명의 방직공들이 년간계획과 상반년계획을 완수하였다.

직포준비직장 리향미동무를 비롯한 함흥모방직공장의 10여명의 방직공들과 하루평균 방직실은 112%, 일반천은 128%수준을 돌파하며 기세좋게 나가고있는 9월방직공장의 20여명의 방직공들도 상반년계획완수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공장적으로 매일 125%이상의 천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해 총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는 구성방직공장의 미더운 방직공들속에는 직포3직장 직포공 허은향동무를 비롯한 40여명의 상반년계획완수자들도 있다.

본사기자 명 흥 숙

년간계획완수자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김정숙평양제사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최상의 질, 최대의 속도를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 돌격대원들

온 나라에 70일전투의 불길이 나날이 고조되는 지금 각지 대건설전투장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건설사업에서 혁신을 일으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많이 일떠세우면 그만큼 강성국가의 기초가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들의 행복의 터전이 훌륭히 마련되게 됩니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를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로력적선물로 완공하려는 백두청춘들에 의해 새로운 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되고있다.

70일전투의 시작과 더불어 지난 2월전투목표를 빛나게 점령한 이곳 청년돌격대원들은 지난 3월 중순 불과 24시간만에 1만 2천여m³에 달하는 최고의 언제쌓기실적을 기록하였다.

총공사량의 80%제선을 돌파하는 이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한 청년돌격대원들은 지금 언제와 발전기실, 방수로공사를 비롯한 전반공사실적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에서도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이 도도히 굽이치고있다.

여러 부대군인들과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수도건설위원회와 대외건설지도국아래 여러 시공단위 일군들과 건설자, 돌격대원들은 경기장내외부의 방대한 벽체 및 천정미장과 2중천정공사, 지붕천정관세척 및 료정공사, 차고굴착을 비롯한 아름찬 공사를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끝내고 계속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드넓은 공사장을 위훈의 활무대로 삼고 지상과 공중에서 맹렬한 철야진군길을 다그치는 모든 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의 비상한 창조정신에 떠받들려 전반공사를 최단기간에 끝낼수 있는 담보가 확고히 마련되고 있다.

중앙동물원 2단계 개건공사장에서도 충정의 70일전투의 불길속에 매일 공사계획이 전투전에 비해 평균 1.3배로 넘쳐 수행되고있다.

수십개에 달하는 건물들의 건축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선 이곳에서는 지금 규모가 큰 자연박물관과 문화회관, 본관을 비롯한 운영건물들의 내부마감과 정에 최대의 공사속도와 함께 최상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전투가 한창이다.

원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건설대상을 맡은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충천한 기세에 떠받들려 규모가 큰 이 건설대상들에서 준공이 선포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한편 중앙로동자회관과 평양곡산공장, 룡악산샘물공장을 비롯한 수도의 20여개 개건공사대상들에서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홍주청년3호발전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내화물생산기지, 김책제철련합기업소 무연알탄생산기지, 농금도간석지와 대안친선유리공장 수지창생산공정을 비롯한 전국의 중요산업건설장들에서도 새로운 대고조의 숨결이 세차게 약동하고있다.

본사기자 지 원 철

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 혁혁한 성과를

각지 농촌들에서 대용비료생산 1.2배 장성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기 위해 애국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고있는 각지 농촌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대용비료생산을 1.2배로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전선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이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평안북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지난해농사에서 찾은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대용비료를 많이 생산하는데 알곡소출을 높일수 있는 중요한 방도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적극 떨쳐나섰다. 특히 이들은 린, 카리대용비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 카리리탄비료생산에 힘을 넣었다.

염주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뿌리발육을 촉진시켜 질소를 비롯한 영양원소들을 잘 빨아들이며 낟알이 빨리 여물게 하는데서 큰 역할을 하는 린회토유기광물질비료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혁신으로 수놓아갔다.

동림군, 신의주시를 비롯한 도안의 다른 시, 군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칼리움과 티탄 등 여러가지 영양원소들이 많이 들어있어 농작물의 생육에 좋은 영향을 주는 카리리탄비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도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린, 카리대용비료는 1.4배, 미량원소비료는 1.5배, 미생물비료는 1.3배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황해북도에서도 대용비료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도, 시, 군책임일군들은 농촌들에서 미생물비료와 미량원소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정산, 신계군에서는 지력개선과 농작물생육에 좋은 여러가지 유기물질을 보장해주면서도 살초효과까지 볼수 있는 람조류생물활성퇴비생산을 적극 다그쳤다.

연탄군을 비롯한 도안의 여러 시, 군들에서도 씨앗의 싹트는률을 높이고 싹트는 기일을 훨씬 앞당길뿐만아니라 뿌리발육을 촉진시키고 식물호소들의 활성과 염록소함량을 높여주는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에 힘을 넣음으로써 도적으로 수십만t의 대용비료를 생산하였다.

강원도에서도 여러가지 대용비료생산에 힘을 넣었다.

천내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린비료를 대용하며 뿌리썩음병을 막는데서 효과가 큰 티오균비료와 고농도린세균비료를 더 많이 생산하여 올해 농사에 적극 리용할 열의밑에 투쟁을 벌렸다.

다른 시, 군들에서도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 람조류생물활성퇴비를 비롯한 대용비료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다.

본사기자 윤 용 호

지난해의 1.5배에 달하는 관개구조물보수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사에 필요한 물을 제대로 대주기 위한 대책도 잘 세워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많은 개소의 관개구조물보수공사가 결속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배이상의 실적이다.

함경북도에서는 지난 시기 큰물로 피해를 받은 관개구조물보수를 주타격방향으로 정하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였다.

온성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70일전투가 시작된 후 며칠동안에 많은 돌을 쌓아 어느 한 강의 3개의 물속돌제방을 복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제방의 견고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철그물을 만들어 입히였다. 이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군의 대부분 면적의 포전에서 농사를 더 잘 지을수 있는 밑천이 열리게 되였다. 명천, 경흥, 경원군에서도 포전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저수지보수와 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남포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와우도구역, 항구구역과 온천군의 일부 포전의 염도를 낮추는데 중심을 두고 비물, 눈석임물을 비롯한 단물을 모조리 잡을수 있는 하천보막이공사에 큰 힘을 넣었다. 이렇게 잡은 물을 염도가 높은 포전에 여러번 갈아대면 얼마든지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한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공사장들에서 충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였다. 결과 시적으로 70개소정도의 보막이공사가 완공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4.9배에 달하는 관개구조물보수가 진행되였다.

황해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난관을 극복하며 완강한 투쟁을 벌려나갔다.

연안군에서는 라진포천의 물을 연백호물길에 끌어들여 물량을 늘임으로써 이 물길의 말단에 위치한 포전들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하기 위한 양수장건설을 다그쳤다.

평안남도, 평양시, 평안북도를 비롯한 다른 도, 시, 군들에서도 사회주의협동벌에 생명수가 넘쳐 흘러들도록 하여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대승전고를 울릴 열의드높이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본사기자 황 철 민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있다.
—연안군에서— 본사기자 리진명 찍음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갈 불같은 열의

전국적으로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갈 신념과 의지로 산림복구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식수철을 맞으며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여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창성이깔나무, 세잎소나무, 평양단풍나무, 잣나무 등 수십종에 수천만그루의 나무를 심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당 및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서자!》라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황해북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나무의 사름률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계획의 50%를 해내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린산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 드높은 결의로 가슴을 끓이며 나무심기에 토양개량 및 수분흡수제를 기술적요구대로 리용하였다. 그리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금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나무를 몇대 심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몇대를 살렸는가 하는데 있다는 관점에서 나무심기에 과학적을 리용하여 사름률을 높일수 있게 하였다. 상원군, 송호군을 비롯한 다른 군일군들과 근로자들도 황금산의 새 력사를 펼쳐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었다.

황해남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기 고향의 산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1000여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해주시에서는 모든 단위들에 산림조성계획을 명백히 주고 나무심기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분발해나선 근로자들은 나무심기에서 기본은 사름률이라고 하면서 탁풀우림액을 효과있게 리용하였다. 옹진군, 재령군, 배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전화의 나날 불타는 전호가에 나무를 심고 가꾼 화선용사들처럼 나무심기에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평안북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뜻대로 계절에 빈틈없이 나무를 심어 사름률을 100% 보장할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산림복구전투에 루린집적제를 적극 도입하였다.

신의주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자면 과학기술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면서 알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였다. 동림군, 태천군, 녕변군을 비롯한 다른 군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나무심기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였다.

평안남도에서 지대별특성에 맞게 나무심기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대동군, 증산군, 안주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로 가슴을 끓이며 나무심기에 토양개량 및 수분흡수제를 리용하여 사름률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강원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였다. 안변군, 고성군, 통천군, 이천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나무심기에 성장촉진제를 받아들이였다.

개성시, 남포시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산림복구전투에 떨쳐나 많은 나무를 심었다.

본사기자 김 창 길

고기생산성과 확대

각지 현대적인 돼지공장들에서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충정과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는 각지 현대적인 돼지공장들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축산물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70일전투가 시작되여 한달동안에 고기생산이 부쩍 늘어나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훨씬 장성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 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각지 현대적인 돼지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고기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70일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강계돼지공장, 정북돼지공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위들이 고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강계돼지공장의 일군들은 고기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돼지의 육성률을 높이는데서 찾고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새끼돼지사양관리에서 먹이보장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설비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쳤다. 그들은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부족되는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긴장한 전투를 벌려 20여일동안에 먹이공급계통설비들의 70%를 개조하였다.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이들은 돼지들의 먹성과 소화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당화먹이의 생산공정을 보다 훌륭히 완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나갔다. 결과 70일전투전보다 새끼돼지의 육성률을 3% 높여 고기생산을 2배이상 늘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정북돼지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될 불같은 결의를 안고 전투전에 비해 2배이상의 고기생산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이들은 돼지의 생리적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먹이배합비률을 찾아낸데 이어 대용먹이를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특히 섬유질말효먹이생산에 좋은 은정복합균을 자체로 배양할수 있는 기지를 꾸려놓고 종전보다 알곡먹이소비률을 훨씬 낮추었다. 그리하여 한달동안에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이상의 고기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함주돼지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3원교잡체계를 받아들일수 있는 우량품종의 종자돼지들을 확보해놓은데 기초하여 먹이문제를 원만히 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돼지의 증체률과 소화흡수률에 좋은 영향을 주는 여러가지 첨가제들의 효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을 내밀면서 그 생산을 늘이였다. 한편 소독약들을 자체로 생산하고 호동과 설비들에 대한 소독을 정상화하여 돼지의 폐사률을 줄이였다.

본사기자 정 성 일

전례없는 혁신적성과를 안고 승리의 5월을 빛나게 맞이할 드높은 열의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질풍같이 몰아간다

국가과학원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합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승리의 5월을 향한 혁명적대고조진군의 앞장에서 과학기술의 기관차를 질풍같이 몰아가고있는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지난 한달동안에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요구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다발적, 련발적으로 이룩하고 전투현장들에 기동적으로 도입하여 만리마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창조투쟁을 과학기술적으로 힘있게 추동하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속에서 날에날마다 훌륭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전기연구소, 수학연구소, 수리해양과학분원 수리공학연구소, 지구환경정보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운영의 정보화와 1호, 2호, 3호발전소통합조종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수력자원관리체계, 합리적인 부하분배체계, 발전기보호 및 안정화체계, 종합관리지령체계를 위한 프로그람개발을 끝냈으며 자동화연구소, 열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운영의 정보화를 위한 려자조종장치, 전자류속계, 수자식다점온도계 등 10여종에 100여개의 장치, 부분품들의 제작을 전투적으로 끝내고 전설현장에 기동적으로 보내주었다.

국산화의 자랑찬 결실들이 련이어 이루어졌다.

기계공학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평화먹이생산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페이자연구소의 과학자들도 높은 수준에서 마그네사이트광석을 선별하는 국산화된 광석및선별기를 처음으로 개발하여 생산적앙양으로 들끓는 룡양광산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중앙실험분석소와 철도과학분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나라의 금속공업과 식료공업의 발전, 렬차운행의 안전성보장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한소, 류황고속측정기와 현대적인 카시분광광도계, 초음파레루균렬탐지기의 국산화를 실현하였으며 정보과학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에서 긴절한 문제로 나서던 무호전력보상체계 조종블로크를 우리의 힘과 기술로 새롭게 개발완성함으로써 황철로동계급의 새 기준, 새 기록창조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또한 흑색광업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단천지구에 꾸려지는 새로운 희귀식부선공정확립에서 정광품위와 실수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111호제작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으로 이동형레스링전자심판기와 력기전자심판기를 개발하고 국산화를 실현하여 나라의 체육과학발전을 적극 추동하였다.

이밖에 조종기계연구소를 비롯한 국가과학원안의 많은 연구단위들이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의 현대화에 필요한 20여종에 수십대의 설비제작과 설치를 끝내고 총련동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 동력기계연구소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연에네르기를 리용하는 자동양어사료공급기를 개발, 제작하여 양어부문에 적극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지난 한달동안에만 하여도 눈에 띄는 혁혁한 성과들이 끊임없이 이룩되였다.

현재 조선인민군 122호양료장현대화에 필요한 설비제작전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대동강자라공장의 현대화를 위한 통합생산관리체계, 지열난방체계, 물재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연구, 도입사업과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에 능력이 큰 공기선한공정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 도입사업을 비롯하여 의의가 큰 전투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있다.

국가과학원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앞으로도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대고조적전이 벌어지고있는 70일전투의 전구들마다에서 과학기술승리의 자랑찬 포성을 더 크게, 더 높이 울려갈것이다.

본사기자 강철웅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보람찬 과학탐구의 낮과 밤으로 이어가고있다.
—국가과학원 중앙비섯연구소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의약품, 의료기구생산 계속 장성

보건성아래 각지 공장들에서

보건성아래 각지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만리마의 속도를 창조하며 의약품, 의료기구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기의것에 대한 믿음과 애착, 자기의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강성국가건설대업과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반드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이룩하여야 합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보건성 고려약생산부문의 로동계급은 21일현재 3월 대중약품, 상비약품생산계획을 지표별로 100% 완수하였으며 의료기구공업부문과 제약공업부문에서도 생산계획을 각각 150%, 120%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고려약생산부문에서는 2.3배, 의료기구공업부문과 제약공업부문에서는 각각 1.5배의 장성을 이룩한것으로서 총정의 70일전투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보건성아래 각지 공장 로동계급의 불굴의 투쟁정신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다.

성당조직의 지도밑에 각 관리국의 책임일군들과 정무원들은 아래단위들을 맡고 내려가 걸린 문제를 풀어주며 대중의 정신력을 활화산처럼 폭발시키기 위한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의 사상전을 드세차게 들이대였다.

국장 리영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뒤떨어진 단위의 하나였던 평양의료기구공장에 전투진지를 정하고 매일 저녁 로동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면서 생산자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어 그들이 전투목표를 한개의 지표도 미달됨이 없이 무조건 수행하도록 이끌어주었다.

모든 의료기구공장들이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추켜들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질좋은 의료기구를 만들기 위한 국산화열풍으로 끓고있는 속에 개성영예군인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의 일군들은 당에서 전형단위로 내세운 단위들에 대한 참관을 기동성있게 진행하면서 따라앉아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심도있게 벌려 제품의 질을 보다 높일수 있는 방도를 찾아내였다.

전투시작후 생산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가운데 강계고려약가공공장, 세포고려약공장, 사리원영예군인고려약공장을 비롯하여 2월중에 상반년도 생산계획을 완수한 많은 고려약공장들이 당 제7차대회전으로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내걸고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있다. 그뒤를 이어 40여개의 단위들이 기한전에 전투목표를 완수할 기세드높이 전진하고있다.

지난 시기 수입에만 의존하던 회전식알약기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제작완성하는 놀라운 성과가 이룩된데 맞게 고려약생산관리국의 일군들은 개건전투가 벌어지고있는 회천고려약공장에 100% 우리의 설비들을 갖추기 위한 사업들을 방법론있게 짜고들고있다.

비약과 혁신의 불길은 제약공업부문에서도 활활 타오르고있다.

평양제약공장개건공사에 떨쳐나선 보건성 일군들과 공장의 로동계급은 당 제7차대회장에로 향한 우리 천만군민의 힘찬 발걸음을 막아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에게 무자비한 불벼락을 안기는 심정으로 하루계획을 두배, 세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순천제약공장, 홍남제약공장 로동계급도 령도업적단위의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오늘의 전투에서 승리자가 될 신심을 안고 최대의 속도로 질풍쳐 내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총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준 전투적인 경제선동활동

중앙의 예술단체,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이 지난 한달동안 연 270여개의 주요전투장들에서 430여차의 경제선동활동 진행

당 제7차대회를 향한 70일전투의 철야진군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한달동안 각지의 대고조전투장들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만리마속도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혁명의 북소리, 총진군의 나팔소리가 우렁차게 울려퍼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중앙의 예술단체,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이 연 270여개의 주요전투장들에서 59만여명을 대상으로 430여차의 경제선동활동을 진행하였다.

온 나라를 창조와 혁신으로 들끓게 한 화선식경제선동활동은 승리의 5월에로 향한 우리 인민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준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제선동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위력한 수단입니다.》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투쟁의 기수, 진군나팔수로서의 사명을 다해갈 불같은 열의로 충만된 중앙의 예술단체,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있는 전력, 석탄, 금속공업, 철도운수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경제선동공세를 강도높이 들이댔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전력생산단위들에 달려나간 국립민속예술단, 국립연극단, 국립교예단, 직총중앙로동자예술선전대의 예술인들은 현장경제선동을 다채로운 형식과 방법으로 보다 전투적으로, 기동적으로 벌림으로써 전력생산자들이 날에날마다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와 북창지구탄광련합기업소안의 여러 탄광들에 나간 피바다가극단,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의 예술인들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과 호소성이 강한 선동시들로 로동계급의 심장을 무한한 혁명열, 투쟁열로 끓게 하여 매일 많은 량의 석탄을 더 생산하도록 하였다.

만수대예술단, 중앙예술경제선전대의 예술인들이 황해제철련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금속공업부문의 여러 단위들에서 명중포화를 련속 들이대여 최고의 실적을 내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철도성예술선전대원들도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운수부문의 여러 전투현장들을 찾아가 로동계급과 일도 같이하고 힘있는 노래도 불러주면서 그들의 앙양된 열의를 비상히 높여주었다.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건설장에 펼쳐진 청년중앙예술선전대원들의 기백있고 생기발랄한 공연도 백두청춘들의 전투적사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백두청춘들은 자신들을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공들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기고 충성의 70일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는데 애국의 구슬땀, 청춘의 열정을 아낌없이 바칠 철석같은 의지로 가슴끓이였다. 김일성경기장개건보수공사장, 중앙동물원 2단계개건공사장,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주요전구들과 사회주의주타격전방인 농업전선에서도 용틀격전의 장엄한 포성이 높이 울려퍼져 온 나라에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중앙의 예술단체, 예술선전대의 예술인들은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온 나라 인민의 심장마다에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백배해주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련대적혁신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하기 위한 화선선동활동에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조향미

국산화의 열풍속에 다발적, 련발적으로 이룩되는 첨단과학연구성과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10여건의 첨단과학기술 및 첨단기술제품에 대한 연구과제 결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려는 우리 당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학에서는 총정의 70일전투의 시작과 함께 년간계획에 반영된 과학연구과제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전투기간에 앞당겨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었다.

특히 홍서헌, 리원철동무를 비롯한 대학의 책임일군들과 과학연구부의 일군들은 전투가 벌어지고있는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달려나가 함께 토론도 해주고 걸린 문제들도 시급히 해결해주는 등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감으로써 교원, 연구사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대학에서는 매일 연구사업추진정형과 성과를 놓고 순위발표와 사회주의경쟁도표를 통한 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있으며 총정의 70일전투기록장에 성과를 지닌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을 등록하고 출근길에 축하방송도 해주고 꽃다발도 안겨주면서 경쟁열의를 한껏 북돋아주고있다. 이런 앙양된 분위기속에서 국가적의의가 큰 첨단과학연구성과들이 다발적, 련발적으로 이룩되고있다.

전기공학부 강좌장 석철, 실장 전영훈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이 지하전동차전인전동기용으로 영구자석동기전동기와 전인변환기를 만들어낸데 이어 자동화공학부 강좌장 서강호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자력자강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며 철야전투를 벌려 제동프로그람과 8축동시조종프로그람을 완성하고 만부하시험에서 성공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실장 김금철동무를 비롯한 전자공학부 전자수감장치연구실의 연구집단은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환경가스종합분석기를 만들어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최첨단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피끓는 심장에 새겨안고 수감부구조확정과 전해질제조, 유해가스생성실험, 전기화학적인 반응물림새확정, 가스투과막의 제조를 비롯하여 새롭게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수백차의 모의실험과 전기화학반응실험, 가스생성실험들을 진행하여 6가지 수감부들을 단번에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금속공학부 소장 리준기동무를 핵심으로 하는 연구집단은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는 우리 식의 수소화합물법원자형광분석기를 설계제작하였으며 강좌장 김인규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국산화된 6각법집형축열체개발에서 성공하고 생산에 진입하였다.

동력공학부 실장 리순철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6종의 영구자석용교순도회토류제조기술에 대한 연구과제를 결속하였고 재료공학부 강좌장 김종건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미소방전에 의한 결면합금화장치를 연구제작하였으며 물리공학부 연구사 리광혁동무는 실용적가치가 큰 대형레이자조각기를 만들어냈다.

광업공학부 연구사 박태윤동무는 발파작업의 편리성, 정밀성 등을 높이면서도 원가가 낮은 우리식의 첨단기폭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켜 얼마전 무선발파기폭체계를 완성하여 현장시험에서 성공하였다. 이로써 발파진동을 50-60% 감소시키고 발파효률을 95%이상 높이며 갱도굴진원가를 훨씬 줄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공업경제관리학부 학부장 김성일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은 세계적으로 발전된 경영업무현집도구를 압도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수백건에 달하는 공업부문별업무양식들과 공식, 업무방법을 수집, 연구분석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 경영정보체계를 도입하였다.

광업공학부 연구사 김문혁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이 완성한 비력한연소효률제고기술, 전기공학부 실장 김용산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이 완성한 10㎿종력발전기설계, 체신학부 학부장 전지현동무를 비롯한 연구집단이 제작한 분산형방송체계용 6통로음향신호분배기…

지난 시기에는 그처럼 빠른 시일안에 해낼수 있으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연구성과들이다.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과학기술의 봉미에 계속 박차를 가하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는 국산화의 자랑찬 열매들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해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다기능화된 실험실습환경을 꾸려놓고 교육사업을 잘하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부에서— 본사기자 찍음

만리마시대를 아름답게 수놓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

70일전투의 30일동안에 각지 근로자들속에서 발휘된 소행을 두고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진행되는 70일전투와 더불어 전례없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불과 3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전투기록장에 새겨진 혁신과 비약의 수자들은 얼마나 놀라운것인가.

70일전투의 30일동안에 새겨진 창조와 위훈의 자욱들에 앞으로의 더욱 눈부신 성과를 확신성있게 담보해주는 귀중한 밑뿌리가 있다. 그것은 우리 당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한 전체 인민이 조국과 혁명,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책임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며 영광의 축전장, 승리의 결승선으로 향한 70일전투의 직선주로에서 높이 발휘하고있는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적인 투쟁기풍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충정과 헌신으로 받드는데 있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지니고 수많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들의 애국의 피와 땀으로 전투기록장의 갈피마다에 값높은 생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곽산군 원포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였던 김종수동무는 오랜 신병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몸이였지만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인 농업전선의 한개 초소를 책임진 전투원이라는 자각을 안고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이신작칙으로 대오를 이끌었다.

그는 치료를 받을것을 거듭 권고하는 농장의 일군들과 의료일군들에게 오늘의 70일전투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두에서 지휘하고계신다, 심장이 고동치는 한 절대로 전투현장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다가 포전에서 생을 마치였다.

삼수군 읍 69인민반의 평범한 주민이였던 김혜순동무는 불치의 병으로 자기의 생이 얼마남지 않았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자신이 당과 조국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그는 군피복공장 당조직을 찾아가 일감을 줄것을 제기하였다.

심한 아픔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일손을 다그치던 그는 지난 3월 2일 재봉기앞에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

이들의 값높은 최후는 70일전투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속에 혁명전사의 심장은 어떤 신념으로 고동쳐야 하는가를 깊이 새겨주고있다.

인간의 한생의 가치를 점증하는 시금석은 청춘기에도 로년기에도 변함없는 애국의 열정과 헌신이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근로의 땀을 아낌없이 뿌리며 아름다운 삶의 자욱을 새겨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배천군의 리회선전쟁로병을 비롯한 10여명의 전쟁로병들은 불비쏟아지는 격전장에서 조국을 지켜 용감히 싸우던 화선병사의 자세로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으며 자체로 마련한 많은 전거름과 소농기구들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다.

남포시 와우도구역 남흥동에서 사는 방용덕전쟁로병을 비롯한 5명의 전쟁로병들과 천리마구역 원정동에서 살고있는 차정순, 포구동에서 살고있는 한인정전쟁로병을 비롯한 5명의 전쟁로병들은 몸은 비록 늙었어도 당과 수령을 받드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파철과 지원물자를 마련하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에 보내주었으며 전투장에 찾아가 전시가요를 불러주며 증산돌격전을 벌리는 용해공들을 감동시키였다.

단천시와 고원군, 금야군의 전쟁로병들도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일념으로 많은 거름과 농기구들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농장원들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김정숙군 삼성리에서 살고있는 박은금로인과 25명의 로당원들은 우리 당원들이 응당 전투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면서 70일전투가 시작된 첫날부터 삼성협동농장에 달려나가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주고있으며 용진군 해방리에서 사는 김성식로인이 자진하여 1정보의 산림을 맡아 관리하고있는것을 비롯하여 가슴속에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한 전국의 수많은 로당원들과 년로자들이 스스로 전투장에 달려나가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던 병사시절의 그 열정과 기백을 안고 원산시 남산동 6인민반에서 사는 림정련동무를 비롯한 5명의 영예군인들과 그 안해들, 대판군 읍 91인민반에서 사는 김경철동무와 25명의 영예군인들과 그 안해들은 공장, 기업소들을 찾아가 힘있는 경제선동으로 로동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우리의 녀성들도 한가정의 주부, 어머니이기 전에 조국과 인민의 장한 딸, 녀성혁명가로 삶을 빛내인 드높은 애국의 일념을 안고 오늘의 70일전투의 철야진군대오속에 용약 뛰어들었다.

력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70일전투가 진행된다는 소식에 접한 김화군 당현고급중학교 교장 리광호동무의 안해 우인숙동무와 8명의 교원가족들은 가족분조를 꾸고 당현협동농장 제2작업반에 진출하였으며 어호고급중학교 교장 최창현동무의 안해 김은신동무를 비롯한 14명의 교원가족들이 가족분조를 꾸고 어호협동농장 제1작업반에 진출하여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섰다.

이들의 실천적모범이 불씨가 되여 군안의 27개 단위의 소학교, 고급중학교의 교원가족 200여명이 16개의 가족분조를 꾸고 협동농장들에 진출하였다.

허천군 읍에서 살고있는 배명숙동무는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와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읍협동농장에 진출하였으며 신계군 구락리에서 살고있는 수백명의 로동자, 사무원가족들이 협동농장에 진출하여 지력이 낮은 포전들을 맡아 헌신의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오늘의 70일전투장을 원쑤와의 판가리결전장으로 여기고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생산돌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우리 인민이다.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집단주의정신과 대중적영웅주의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 주체조선의 만리마시대를 열어나가는 기적과 혁신의 벅찬 숨결이 조국땅 방방곡곡에서 약동하고있다.

고건원탄광 6월20일갱 기본굴진중대 중대장 리광수동무와 굴진공들은 뜻밖의 봉락으로 갱안에 갇히게 되였다.

생사를 기약할수 없는 정황속에서 그들의 심장에 하나로 고동치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으리라는 백절불굴의 신념이였고 당앞에 맹세한 70일전투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철석같은 의지였다. 그들은 임술을 사려물고 일어나 전투를 계속했다.

막장이 복구된 후 탄광의 일군들이 갱에 들어가 휴식할것을 권고했지만 그들은 계획을 수행하기 전에는 막장을 떠날수 없다고 하면서 굴진작업을 계속하여 그날계획을 135%로 넘쳐 수행하였다.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13개 청년돌격대 전투원들은 당 제7차대회전으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파감한 돌격전을 벌려 상반년 굴진계획을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평안남도안의 탄전들에서 1000여명의 탄부들이 상반년 인민경제계획을, 수천명의 탄부들이 1.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 대형조기직장 대형작업반 반장 김광철동무는 자기가 맡은 기대외에 련관공정의 기대를 더 맡아보는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어 작업반원들을 다른 기대들도 능숙하게 다룰수 있게 준비시켰으며 그것이 점차 직장적인 사업으로, 련합기업소적인 사업으로 벌어져 생산에서 더 높은 속도가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온 나라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영광의 대회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총진격의 나날에 우리 사회의 고유한 본태와 대풍모의 발현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무수히 꽃펴나 집단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격조높이 과시하고있다.

지난 3월 1일 함흥시 홍덕구역 은덕산업병원으로 한 환자가 실려왔다. 그는 구역산림경영소에서 일하는 박순남동무였다. 환자의 상태는 매우 위급했다.

의료일군들은 즉시에 협의회를 열고 치료대책을 토의하였다. 환자에 대한 수술이 진행된데 이어 많은 약물이 환자의 몸으로 흘러들었다.

의료일군들은 밤잠도 잊고 긴장한 치료전투를 벌리며 환자곁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병원의 의료일군들이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하고있을 때 홍덕구역 홍서동의 주민들은 박순남동무의 가정을 위해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었다.

진강을 회복하고 전투장으로 떠나며 박순남동무는 고마운 조국을 위해 70일전투의 하루하루를 위훈으로 수놓아갈 불같은 맹세를 더욱 가다듬었다.

량강도산원 원장 유봉모동무를 비롯한 의료일군들은 뜻밖의 일로 피를 많이 흘리고 중태에 빠진 환자의 소생을 위해 자기들의 피를 뽑아 수혈하였으며 토산군인민병원의 의료일군들도 위급한 병으로 실려온 환자를 온갖 정성을 다해 소생시켜 70일전투장에 다시 내세웠다.

오늘의 70일전투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흐르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후대들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대중적영웅주의와 혁명적낙관주의를 높이 발휘하며 70일전투의 참전자들은 30일간의 날과 날들을 창조와 혁신으로 수놓아왔다.

이런 고상한 사상정신적풍모와 혁명적인 투쟁기풍이 창조와 혁신의 밑불로 타번지고있는 70일전투의 격전장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승리의 단상에 높이 모시고 성대하게 열릴 우리 당 제7차대회에 삼가 드릴 충정과 의리의 꽃바구니가 엮어지고있다.

본사기자 조경철

세계평화의 파괴자, 교란자로서의 미국의 정체는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국은 현실을 랭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과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 조미사이에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미국에서 나온 주장들이 주목되고있다.

이전 미행정부소속 한 정책연구사는 론평에서 조선은 명실공히 핵대국이며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것, 력사적으로 볼 때 조선의 핵보유와 관련한 그 어떤 제재도 맥을 추지 못하였다는것 등을 자료적으로 론증하면서 이제는 미국이 더이상 과대망상적인 돈 끼호떼식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그 무엇으로써도 변화시킬수 없는 조선의 핵보유국지위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 미국무성 관리 죠엘 위트도 제재가 조선에는 통하지 않을것이므로 조선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에 응하는것이 옳다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도 이에 공감을 표시하고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주변에서 핵전쟁연습소동에 광분하고있는 때에 울려나오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기를 국제사회가 얼마나 강렬히 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똑똑한 대조선전략이 없는것으로 하여 조선에 대한 제재가 바쁜 목이나 넘기는 식의 《교정격식화된 전략》으로 되였다고 하면서 《당신들의 전략은 무엇인가?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제재를 강화하는것만으로 과연 무엇을 얻을수 있겠는가?》라는 등의 질문을 미국에 들이대고있다. 그들은 조선은 핵을 포기하기는커녕 4차에나 핵시험을 진행하였으며 핵보유를 법화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이제는 변화시킬수 없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있다.

미국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은 제나름대로의 평화협정체결의 단계별내용까지 제기하고있다. 그에 의하면 평화협정체결의 첫 단계에서는 《조선전쟁종결에 관한 공식선언》을 토의발표하고 그 다음단계에서는 미국과 남조선의 년례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며 군사분계선을 없애는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론의하고 추진해야 한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를 풀수 있는 방도는 협상밖에 없다는데 대해서도 같은 견해를 내세우고있다.

그들은 미국은 조선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실현했다고 선포한지 1시간후에 미싸일을 발사하고 조선의 미싸일을 요격하기 위해 알라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미싸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있다, 이것은 미국이 비현실적이며 황당하기 그지없는 타산으로부터 단행한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인구가 밀집되여있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서울에 대한 조선의 보복타격을 불러올수 있다, 미국이 조선의 미싸일들을 요격하기 위한 시험에서 실패하고 조선이 핵무기능력을 부단히 향상시켜 핵탄두의 소형화와 대륙간탄도미싸일개발을 완성한 조건에서 조선의 핵기지에 대한 타격은 더 불가능하게 되였다는것을 현실로 증명해주고있다라고 평하고있다.

이러한 론조는 타당성이 있는것으로 하여 여론의 이목을 끌고있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오늘의 험악한 사태는 이곳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어느 한 외신은 조선반도에서 전쟁발발을 방지하는것이 가장 절박하고 긴급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조선에 대한 경제제재나 군사연습강행 등의 압박정책이 무의미하다, 조선의 안전보장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가 60여년간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진정한 평화는 절여되여있다, 이것이 정세불안정의 기본요인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조선의 《제도전복》을 공식 추구하고 《불량배국가》 등의 딱지를 붙이며 군사연습을 정례화하고있는것은 뿌리깊은 조미사이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보장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준다라고 강조하였다.

외신들은 미국이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는 목적은 일본과 남조선 등 동북아시아나라들에 대한 미군주둔을 합법화하고 주변나라들을 견제압박하기 위한데 있다는데 대해서도 까밝히였다.

제반 사실들은 국제사회가 남조선에서 벌리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연습소동을 한결같이 규탄배격하고있으며 미국이 핵강국이 된 우리와 대결할것이 아니라 조선을 있는 그대로 보고 존중해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미국의 안전도 보장할수 있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이 초래할 파국적후과에 대해 똑똑히 명심하고 현실을 랭철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박 송 영

모험적인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정세악화의 장본인
국제기구가 단죄

국제인민투쟁련맹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자주권과 정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위협과 도발을 일삼으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격화시키고있다. 특히 《방통》훈련은 극히 침략적이다.

성명은 이 훈련의 규모와 위험성 그리고 이에 대처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에 대하여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침략자들을 선제타격할 권리를 가지고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평양진격작전》에 투입된자들도, 이를 고안해낸 음모의 소굴들도 가차없이 불마당질해버릴 의지를 엄숙히 천명하였다.

국제인민투쟁련맹은 산하 모든 조직 및 단체들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배격할것을 호소한다. 또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조선반도정세를 악화시키고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라는것을 폭로단죄할것을 호소한다.

새로운 세계대전의 도화선
나이제리아정당 성명 발표

나이제리아인민진보당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1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조선반도에 조성된 불안정한 정세는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칙적인 립장을 지지한다. 조선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은 명백히 침략적인 군사연습이다. 이 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위험이 제일 큰것으로 하여 새로운 세계대전의 도화선으로도 될수 있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가 평화를 바라고 누가 전쟁을 추구하는가를 똑바로 가려보아야 한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과 대화할 의사가 있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여야 한다.

평화를 파괴하는 무분별한 망동
기네, 뽈스까단체 성명 발표

기네, 뽈스까단체가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핵전쟁연습을 규탄하여 11일과 1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기네조선친선협회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자위적인 수소탄시험과 합법적권리인 위성발사를 구실로 미국이 유엔을 도용하여 《제재결의》를 날조하다 못해 이제는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가고있다.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남조선과 강행하는 《키 리졸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침략책동이다. 미국은 《정양진격작전》에 대해서도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이에 대처하여 조선이 자체방위를 위한 준비를 갖추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조선은 적들의 공격시도에 대하여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조선을 반대하는 유엔안보리사회의 《제재결의》와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있다.

모든 침략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라!

【조선중앙통신】

대조선《제재결의》를 즉시 철회하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의 선택
스위스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는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처한 불가피한 자위의 선택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개별적인 유엔성원국을 대상으로 국제법에 명시된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에 대해 시비할수 있는 권한이 유엔헌장의 어느 항목에 규제되여있는가.

대조선《제재결의》는 주권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생존권을 부인하고 사회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한것이다. 그러나 조선에 제재가 통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 무엇도 조선이 보다 발전된 과학강국으로 되는것을 막을수 없다. 이것은 확정적이다.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성명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적우주리용권리에 대하여 시비할 아무런 명분도 없다.

위선과 날조의 극치
수리아인사 담화 발표

천만부당한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를 규탄하여 7일 수리아 디마스끄종합대학 정치학부 강좌장 싸베르 발톤이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구실로 분주탕을 피우던 끝에 유엔안보리사회를 도용하여 새로운 《제재결의》를 조작해낸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조작은 위선과 날조의 극치이다. 유엔안보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인류를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정책의 산물이다. 대조선《제재결의》조작은 파렴치하고 너절한 행위이다. 수리아인민뿐아니라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반록하게 유린한 유엔안보리사회 《제재결의》를 강력히 규탄배격하고있다.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며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가려는 조선의 립장을 지지한다.

조선반도비핵화가 영영 날아가버린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이 지게 될것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조선인민에게 전적인 련대성을 보내고있다.

조선인민이 핵억제력강화와 우주개발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조선중앙통신】

평화를 파괴하는 인류의 원쑤(2)

진보적인 나라들을 교살한 미국의 행적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미국은 제국주의의 우두머리로 등장하였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롭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해방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세계를 저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는 미국에 있어서 이것은 커다란 장애가 아닐수 없었다. 이로부터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비상히 앙양된 민족해방투쟁을 말살하는것과 함께 진보적나라들의 정부를 전복하는데 공격의 화살을 돌리였다.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반미적인 나라들에 친미적인 정권을 조작하기 위해 반정부세력들에게 막대한 자금을 대주면서 그들을 정부전복에로 부추겼다.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군사정변이 하나의 유행병처럼 자주 일어난것은 미국의 책동에 기인된다.

군사정변이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반제자주적인 길로 나가는 새로 독립한 나라들, 늦게나마 대미추종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는 나라들이였다.

정부전복책동은 아시아에서 우심하게 나타났다.

일제가 패망한 후 라오스, 캄보자, 월남,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들려는 서방렬강들의 책동은 계속되였다. 특히 렬강들을 밀어내고 저들의 독점적지배를 실현할 야망밑에 미국은 이 나라들에 신식민주의을가미를 씌우기 위한 정부전복책동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미국은 라오스반동세력을 부추겨 1954년 11월에 조작한 친미적인 까따이정부가 라오스인민의 투쟁에 의하여 붕괴되고 련립정부가 수립되자 친미반동들을 사촉하여 다시 내란을 일으키게 하였다.

자주와 진보를 지향해나선 캄보자를 요람기에 압살하고 친미정권을 세우기 위해 반동세력들을 긁어모아 그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훈련을 주어 정부전복에로 부추겼다.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로 나아가는 월남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미국은 남부월남괴뢰들을 북부월남전복에로 내몰았다. 그러나 월남인민의 투쟁으로 미국의 이러한 음모는 실현될수 없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은 바크보만사건을 조작하여 월남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간섭의 길에 나섰다.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정부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미중앙정보국 요원들을 이 나라에 파견하여 모략을 꾸미는 한편 1958년 2월 우익반동들을 부추겨 반란을 일으켰다.

이란에서의 석유리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간첩들을 이 나라에 들이밀어 언론인과 군인, 국회의원들을 매수하였다.

1953년 8월 반정부세력을 내몰아 모사데크정부를 붕괴시키고 친미적인 파흐라비정권을 조작하였다. 그후 25년간 이란에서의 원유리권의 40%를 장악하였다.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도 미국의 정변조작책동은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1959년에 꾸바에서 일어난 혁명에 위구심을 느낀 미국은 이 나라를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 공산정권이 수립될수 있다고 매번이면서 반혁명분자들에게 총을 쥐여주어 무장도발을 감행하였다.

1973년에는 반동분자들을 부추겨 진보적인 칠레의 알엔데정권을 붕괴시켰다.

이밖에도 미국은 《암흑의 대륙》, 《식민지대륙》으로 불리워온 아프리카에서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세우기 위하여 대통령들의 외국방문기간 은밀히 진보적정부의 지반을 허무는 방법 등 비렬한 수법으로 정부전복음모실현에 미쳐날뛰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지금까지 미국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한 정부전복음모는 수없이 많다.

미국의 교활하고 악랄한 책동에 의해 아시아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후부터 1960년대 중엽까지의 기간에 23차, 아프리카에서는 1960년부터 1968년까지의 기간에 20차에 달하는 군사정변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1950년대에 20개 나라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났다.

미국은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나중에는 부랑한 구실을 코에 걸고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도 서슴지 않았다.

1980년대에 《미국인보호》와 《민주주의질서회복》이라는 간판밑에 감행한 그레나이더에 대한 침략과 빠나마에 대한 침공, 1990년대의 페르샤만전쟁과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군사적침공, 새 세기에 들어와서 일으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전쟁 등 년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주권국가들을 반대하는 군사적침공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제반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인류의 자주적발전과 사회적진보를 가로막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장 파렴치한 침략자, 흉악한 교살자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수 진

고약한 악습이 화를 빚어낼수 있다

요즘 일본정객들이 반공화국여론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일본외상 기시다는 북조선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반발하여 《도발적인 언동을 하고있는것을 절대로 용인할수 없다.》느니, 《국제적압박공세를 강화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며 비린청을 돋구었다.

방위상 나까따니는 북조선이 추가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은 부정할수 없다, 있을수 있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헤쳐댔다.

개표리 삼년 가도 황모 못된다고 남을 헐뜯고 시비질하는 일본의 고약한 악습은 을배칼에 없다.

반공화국적대의식이 골수에 찬 이자들의 망발이 론의할 한푼의 가치도 없는 요설에 지나지 않는것이지만 허위와 진실을 명백히 가르고 일본당국자들의 흉심을 까밝히기 위해 몇마디 하지 않을수 없다.

현재 남조선전역에서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이 벌리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은 말로나마 《년례적》이며 《방어적》이라고 정당화하던 간판마저 벗어던진 가장 로골적이고 가장 악랄한 사상 최대규모의 북침핵전쟁연습이다. 적들은 우리의 핵보유능력을 막고 핵통제권을 장악하려면 《참수작전》과 같은 특수작전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있다.

지난 시기 미제와 괴뢰역적패당은 일본과 남조선은 물론 미국본토에서 우리의 최고존엄과 《제제붕괴》를 겨냥한 각종 특수훈련들을 극비밀리에 벌려왔다. 하지만 지금처럼 세상에 내놓고 공개해대며 지랄발광한적은 일찌기 없었다.

우리 인민 누구나 삶의 전부로 여기는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 침략자들의 천하무도한 망동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일촉즉발의 핵화약고우에서 무모하게 강행되는 적들의 북침전쟁소동을 수수방관한다면 우리 민족이 무사할수 없고 세계가 핵전쟁참화를 면할수 없다. 우리는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해, 세계평화를 위해 반미전면대결전을 선포하였다.

에스빠냐국방성의 지정학전문가인 페드로 바뇨스는 조선반도에서는 평전이 지속되고있으며 현실적인 장벽도 존재한다,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에서 정기적으로 벌리고있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놓고볼 때 북조선의 행동을 《도발》이라고 규정하기는 곤난하며 일련의 대응이라고 보는것이 정상이다라고 평하였다.

일본정객들에게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이상 이것을 모를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와 군부의 우두머리들이 사물현상에 대한 초보적인 판별능력조차 상실한 황당무계한 잠소리를 헤쳐대는것을 보면 일본의 대미추종자세가 얼마나 뿌리깊고 급속적인것인가를 다시금 똑똑히 알수 있게 한다.

원래 남을 짖고늘어지는것은 뒤가 켕기거나 점은 속통머리를 가지고있는자들이 하는 너절한 행위이다. 일본이 그렇게 쏠라닥거리는것으로 우리 나라의 대외적권위와 존엄을 약화시키고 국제적압력을 들이댈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자체가 참으로 어리석다. 우리에게는 일본의 그러한 시비질이 한갖 개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일본이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여론전에 광분하는 리면에는 상전의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합세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자는 약삭바른 타산이 깔려있다.

력대로 일본은 큰 나라를 등에 업고 제리속을 채워왔다. 일본이 전투무력보유와 전쟁금지를 규제한 《평화헌법》의 병풍뒤에서 군비증강에 박차를 가하여 오늘날 세계 군사렬강들과 어깨를 겨룰수 있게 된것은 미국의 적극적인 뒤받침과 비호두둔을 떠나서 절대로 생각할수 없다. 랭전시대의 산물로서 오래전에 그 존재명분이 상실된 주일미군을 지금껏 붙잡아두고 그 유지비용으로 자국인민들의 혈세를 상전에게 섬겨바치며 비굴한 대미추종정책에 극성스레 매달리는것도 미국에 의존하여 군사대국화와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은 저들의 전략적리해관계로부터 재침을 추구하는 일본을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돌격대, 전쟁머슴군으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의 군국화, 군사대국화를 부채질하며 일본을 저들의 전쟁사슬에 단단히 얽어매놓으려 하고있다. 지난해에도 미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여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전세계에로 확대시킴으로써 제망의 앙갚음에 들떠있는 군국주의괴물에게 재침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그들대로 미국의 침략정책에 발맞고 가담, 협력하여 군국주의야망을 한사코 이루어보려 하고있다.

해마다 군사비를 늘이며 최신군사기술의 획득, 신형무장장비의 구입에 미쳐날뛰는 한편 미국과 한짝이 되여 우리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법의법 명목의 군사연습을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일본이 미국, 남조선과 정보공유합의서를 체결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정탐행위를 로골적으로 확대강화하고있는것 등은 군사작전능력을 높여 선제공격을 감행하자는데 궁극적목적이 있다. 미국상전의 겨드랑이밑에 붙어 침략의 칼을 벼려온 일본은 재침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다. 일본이 상전의 반공화국압살공세에 춤을 추며 그 무슨 《도발》에 대해, 그 무슨 《압박》에 대해 운운하는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재미난 꿀에 범난다는 말이 있다. 재침에 들떠있는 일본당국자들은 그따위 악습이 자신들과 국민들의 장래에 돌이킬수 없는 재앙을 빚어낼수 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 땅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가쓰라—타프트협정을 체결할 때처럼 우리 민족을 흥정물로 삼던 비극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이미 적들의 무모한 반공화국광증에 대처하여 자기의 립장을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가 누구든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헐끌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추호의 용서도 아량도 인내도 모르고 그 즉시 가차없이 징벌하려는것이 천만군민의 철석의 의지이다.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만일 일본당국자들이 사태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무모하게 날뛴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때늦은 후회는 백번 해도 소용없다.

배 금 희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20차 토론회
메히꼬에서 진행

새 사회건설에 관한 세계정당들의 제20차 토론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메히꼬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메히꼬로동당 전국지도자 알베르또 아나야 구띠에레스를 비롯한 메히꼬로동당 지도부성원들과 산하조직 대표들, 우리 나라와 로씨야, 중국, 월남 등 40여개 나라의 130여개 정당, 단체대표단 및 대표들 700여명이 참가하였다.

메히꼬의 여러 정당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비롯한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메히꼬의 국기게양 및 국가주악으로 개막된 토론회에서는 먼저 라틴아메리카지역 나라들의 주요정당대표들이 축하연설을 하였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축전이 소개되였다. 이어 연설과 토론들이 있었다.

우리 나라 대표단단장은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옹호전진시키기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을 짓부시면서 당 제7차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는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의 의지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진보적인 정부들을 전복하기 위한 제국주의자들과 국우익세력들의 정치군사적공세 특히 출판선전물과 인터네트를 통한 여론전, 심리전의 본질과 해독성 등에 대하여 까밝히고 이를 철저히 막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특히 진보적정당들이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광범한 인민들에게 튼튼히 의거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청년들과의 사업을 중시함으로써 당의 대중적지반을 공고히 할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반테로전》, 《인권옹호》의 미명하에 침략과 간섭행위를 더욱 로골화하며 민족적 및 종교적분쟁을 일으켜 나라들의 정치적안정을 파괴하고 자주적이며 진보적인 나라들의 경제적리익을 침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신랄히 폭로단죄되였다.

베루공산당(붉은 조국) 대표와 미국로동자세계당 대표는 우리 당과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위업을 굳건히 수호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을 호소하는 문건이 채택되였다. 문건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나라의 자주권과 평화를 수호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한다.

1.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경이적인 성과들을 높이 평가한다.

2.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며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막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모든 제안과 노력들을 지지하며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의 평화협정체결제안에 조속히 응해나설것을 요구한다.

3. 오는 5월 평양에서 열리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열렬히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련대성운동을 고조시킬것을 세계 진보적정당, 단체들에 호소한다.

경계심을 자아내는 미국의 침략전쟁준비책동

무력증강책동 미국이 태평양수역에 대한 무력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VOA방송은 미해군이 핵잠수함 《센터키》호를 태평양수역에 실전배비하였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핵잠수함배비책동은 지역나라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무장장비개발책동 미국이 침략전쟁에 써먹을 새로운 무장장비개발에 발광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이 나라의 UPI통신은 최근 워싱톤주의 시애틀시에서 보잉회사가 개발하고있는 《KC-46A》공중급유기의 시험비행이 벌어진 사실을 밝혔다.

미싸일발사시험 세계제패야망에 들떠있는 미국이 최근 잠수함탄도미싸일발사시험을 감행하였다.

미해군은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의 항행과정에 3발의 《트라이든트-2 D-5》미싸일을 발사하는 놀음을 벌렸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에서 녀성들에 대한 성적학대행위 우심

일본에서 녀성들에 대한 성적학대행위가 우심하게 나타나고있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최근 이 나라의 한 사회단체가 직업을 가진 녀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적인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약 30%가 성적학대를 받았다고 울분을 표시하였다 한다.

ㄱ-610476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번호 위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